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경진대회서 두각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2024년도 제8회 월드뷰티엑스포&뷰티페스티벌 미용경진대회에 참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4일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 주관·주최로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850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출전했다.

이날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미용건강과 2학년 뷰티스타일리스트반 학생 28명은 헤어미용 등 10개 부문에 출전해 6개 분야 그랑프리를 석권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여한 미용건강과 2학년 미안마 유학생 10명도 기초헤어편분야에서 그랑프리 1명(중외), 대상 2명(무무세인, 쇠에문), 최우수상(3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등에서 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실버체조 교실 성황리 마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실버체조 교실이 27일 수업을 끝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실버체조는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운동으로,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실버체조는 혈압과 우울증 감소시키고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도와 어르신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유연성과 균형, 유산소 운동을 조합하여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수강 중인 어르신은 "실버체조를 통해 삶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 벌써 상반기 수업이 미루리 된다고 생각하니 아쉽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여름철 폭염 대비 구급활동 추진

무주소방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비 구급활동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말에 따르면 지난 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208명으로 예년 대비 57명(55.8%) 증가하였으며, 한 달 기준이 가장 높은 12시부터 1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센터 및 지역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일정조끼, 얼음팩, 전해질 용액, 체온계 등 폭염 대응장비를 준비하여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한다.

폭염 발생 시 행동 요령은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이외활동 시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소룡동 동행기업과 함께하는 사랑愛 국수 나눔

'소룡1°C 프로젝트' 연이은 기업 참여로 출범 1년만에 12개 동행기업 참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산시 소룡동(동장 정삼권)에서 소룡1°C 동행기업과 함께하는 '사랑愛 국수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쳐 눈길을 끌었다.

27일 소룡동에 따르면, 지난 24일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앞에서 열린 '사랑愛 국수 나눔 행사'는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주관으로 소룡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그리고 1호 동행기업 OCI 군산공장 천사봉사대로 구성된 8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봉사했다.

여기에 흥이오 예술단 등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축하 무대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신원식 군산 부시장을 비롯한 소룡1°C 프로젝트 8호~12호 동행기업 관계자, 복지대상자 및 관내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국수나눔행사 전 소룡1°C 프로젝트 8호~12호 동행기업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협약식 및 현관 전달식을 진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행기업의 소룡1°C 참여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룡1°C 동행기업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으로 정기기탁을 통해 관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소룡동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탁금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삼권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봉사자분들과 (주)조은세상, 해강건설, 한일온열기,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대흥씨씨유 5개 소룡1°C 프로젝트 동행기업의 선행에 깊은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신원식 군산부시장은 "작년 짜장나눔행사에 이어 올해 국수나눔행사도 군산산업 발전의 중심인 관내 기업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확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룡1°C 프로젝트와 함께 소룡동에서 시작한 나눔 문화 확산의 흐름이 군산시 전역에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제시, 상습투기지역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담배꽁초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식당 및 상가 밀집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20개를 설치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은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오직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운영을 원하는 점주의 신청을 받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관리 점검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과 함께, 기존 시범사업으로 호평과 함께 2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한편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제3회 내장상동 작은 음악회' 성료

정읍시 내장상동주민자치회(회장 류준환)가 주관하고 내장상동주민센터(동장 박은주)가 후원한 제3회 내장상동 작은 음악회가 지난 24일 공김풀리스센터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작은 음악회에는 지역주민과 관람객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헤친하고 친목을 다졌다.

행사는 동 주민자치센터 리인댄스팀 공연을 시작으로 유명가수 박상민, 김혜정, 신성함, 이나 등 초청가수들이 출연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류준환 회장은 "이번 작은 음악회가 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새만금 33센터 환경정화 나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 행복드림가족봉사단(회장 김경순)은 지난 25일 6가족 14명이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2024년 3월 28일 김제시 관할권으로 결론을 내린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새만금 33센터는 배 모양을 본떠서 건축되어진 통합통제소로, 방조제 33km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7층 높이의 33미터의 전망대로 건축해 새만금 전역을 시방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